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 | | | | | | | |
|-------|----------|----------------------------------|--------------|----------------------|----------|-------------|--------------------|
| 미사 | 주일 미사 |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 성사 | 고백 성사 | 미사 30분전 | 예비자 교리 |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
| | 평일 미사 |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 | 유아 세례 | 2주일 전 신청 | | |
| 신심 | 성 시간 |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지속적인 성체조배 | 병자 성사 봉 성체 | 2주일 전 신청 | 통신교리 - 전화문의 | |
| | 성령 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 | 혼배 성사 | 3개월 전 신청 | | |
| | 향심 기도회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 |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 | | |
| | 하느님의 뜻영성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 | | | | |
| 주일 학교 | | 매주일 오전 11:00-12:15 | 한국학교 | 토요일 오전 9:40-12:50 | | | |



[제 1독서] 2마카 7,1-2.9-14
[화답송] 시편 17(16),1.4과 5-6.8과 15(◎ 15- 참조)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 하리이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계명의 길 곳곳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당신 노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 하리이다.◎
[제 2독서] 2테살 2,16-3,5
[복음 환호송] 묵시 1,5.6 참조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복음] 루카 20,27-38<또는 20,27.34-38>

| | | | | | |
|----|--------|-------|------------|------------|--------|
| 성가 | 8시 미사 | 입당 49 | 봉헌 주님 믿나이다 | 성체 155 164 | 파견 227 |
| | 11시 미사 | 입당 49 | 봉헌 주님 믿나이다 | 성체 155 164 | 파견 227 |

주일 전례 봉사

| 구분 | 연중 제 32주일(11월 10일) | | 연중 제 33주일/평신도주일(11월 17일) | |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 24일) | |
|--------|--------------------|------------|--------------------------|----------|-------------------|-----------|
| | 8시 | 교중미사 | 8시 | 교중미사 | 8시 | 교중미사 |
| 미사해설 | 이바로로(명국) | 전베로니카(진영) | 임루카(승원) | 조레지나(선덕) | 정스텔라(애리) | 허세실리아(홍숙) |
| 제 1 독서 | 강요한(신호) | 허라우렌시오(순구) | 최분도(환준) | 최다니엘(대연) | 김안드레아(찬곤) | 구미카엘(창희) |
| 제 2 독서 | 김안젤라(영선) | 허파비올라(옥진) | 최분다(수영) | 서테레사(춘애) | 김글라라(순희) | 김테레사(승희) |
| 보편지향기도 | 독서자 | | 독서자 | | 독서자 | |

오늘의 강론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늘의 전례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복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펴니다. 모세는 “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 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으며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 (루카 20,29-33)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너무나 비약이 심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뻔합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절대다수의 백성들이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외세와 결탁하여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들의 친일행각을 상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은 이들의 음흉한 속셈에 일침을 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 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루카20,34-35)”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루카 20,38)

오늘 제1독서인 마카베오기 하권에는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율법을 모독하라는 황제의 명을 거부하고 장렬하게 순교하는 일곱 형제와 한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인간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더 위대한 가치는 무엇이나. 그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곱 형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마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한 넷째 아들은 자신과 자신을 죽이는 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부활에 대한 인식에 있음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오늘 마카베오가 전하는 용감한 한 가족의 삶은 분명 부활을 믿는 자들의 용감한 삶의 모습이고, 복음에 나오는 사두가이파들의 삶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거짓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봅시다.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며, 우리도 언젠가는 가게 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갑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희망을 찾습니까?

교형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천주교를 믿습니까? 첫째, 복을 받기 위해. 둘째, 죽은 다음 영원한 삶을 위해. 셋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넷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2004년 한국갤럽에서는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하면서 불교인과 개신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에게 “왜 종교를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천주교인의 7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를 믿는다고 대답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6.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도 마음의 평안이 59.4%로 많았지만, 영원한 삶을 위한 대답이 22.7%에 달하면서 천주교인보다 3.5배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 이야기를 한국 천주교인의 종교의식에 따라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시리아왕 안티오코스가 이교제사를 강권하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데에 대하여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오.” (2마카 7,9)라고 항변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만약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를 믿었다면, 그들도 현실에 타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내세의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모두 죽음을 선택하였을까요?

한편 제2독서에서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은 제2장에서 특히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서 일부 신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사되기 이전에 먼저 많은 전조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고찰이 이 서간의 주제이기는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점은 테살로니카 신자들도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든지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초대 교회에서부터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이 신학적 중심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들과 부활논쟁을 벌이셨는데, 오늘 복음말씀인 루카복음보다 마태복음에서

그들을 더욱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마태22,29-30)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루카 20,36)

결국 사두가이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희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상황을 만들어 질문하고 꾸지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세구원에 더 큰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각자 진지하게 자문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겸손은 땅입니다.
땅처럼 낮고 밝히고

쓰레기까지 받아들이면서도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글-좋은글/그림-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교도소에서 온 편지

얼마 전 회사 사옥 이전을 위해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해묵은 편지를 발견하고는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혔습니
다. 책상 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편지는 10년 전 청
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분과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느
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
봄, 제가 활동하고 있던 가톨릭남성합창단이 성동구치소로
위문 연주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오보예를 전공하던 저의
아들도 동행하였습니다.

합창단이 몇 곡의 성가와 노래를 부른 후 아들이 영화
미션의 주제곡인 ‘가브리엘의 오보예’ 를 연주하였습니
다. 연주를 마친 후 사회자가 오보예를 연주한 학생은 합
창단원의 아들이며 엄마와 동생 등 온 가족이 음악으로 봉
사한다고 소개를 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날 일은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본당의 사무장님이 저에게 온 것이라며 한 통의
편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발신지가 경북 청송군 00우체국 사서함 0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분은 성동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있을 때 저희들의 연주를 들었고 그 후 청송교도소로 이감
되었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가족이 봉사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합창도 좋았고 오보예 연주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
지와 아들이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
니다. 편지에서 그분은 그동안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왔는데 그날 연주를 듣고 삶의 의
미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으며, 자신도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교리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모르고 죄악 속에 살 때는 몰랐지
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남아 있는 삶
을 주님과 함께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한 이상, 더 이상 죄
를 지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이젠 어떠한 고통
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저 멀리 보이는 하느님의 십자가
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봉사를 통

해 주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해 12월에 영세를 받는다는 그분을 찾
아가서 축하해 드리고 싶었지만, 생면부지의 재소자를 찾
는다는 것이 저의 미약한 신앙으로는 어렵게 느껴졌기에
성경을 한 권 사서 답장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였습
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편
지에 썼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
께 하는 생활을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
립니다. 아멘!

김태식 토마스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

머무름

노인을 단지
관심과 친밀함과 봉사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경험의 풍부한 보화 덕분에,

노인은 희망과 사랑의 종인이자
지체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94항

가톨릭전례

병자성사

1) 질병의 의미

질병은 우리 삶에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을 체험합니다. 모든 병은 희미하게나마 죽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병은 사람을 더욱 성숙시킬 수도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뉘우침으로써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2) 의사이신 그리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질병이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반대로 하느님께 충실하면 생명을 돌려받는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자신의 병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치유를 애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실 때가 오리라고 예고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병자들을 동정하시고, 여러 가지 병을 고쳐 주시는 행적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명백한 표징이었습니다.

3) 병자성사의 제정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모범을 따라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마르 6, 12-13)

주님께 이러한 사명을 받은 교회는 병자들을 보살피고 아울러 그들을 위해 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시라는 것을 함차게 증거합니다.

4) 병자성사의 형식

사제는 병자의 이마와 양 손바닥에 병자성유(병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성된 기름)를 발라주며,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바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교우를 도와주소서. 또한 이 교우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 주소서. 아멘.”

사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그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사해 주는 “전대사”를 베풀고, 성체를 영해 줄 수 있습니다.

5)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성사인 노자(路資) 성체

병자성사의 핵심은 병자성유를 바르는 것이지만, 병자에게 성체를 영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자성사 때 주어지는 성체를 노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임종 때에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는 단일성을 가지듯이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그리고 노자로 모시는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말에 이르렀을 때 ‘천상 고향에 갈 준비를 갖추는 성사’ 또는 나그넷길을 마무리하기 위한 성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525항).

6) 병자성사는 누가 받는가?

과거에 병자성사는 “중부성사” (인생에 중지부를 찍는 성사)라는 말로 불렸고 죽기 바로 직전에 단 한번만 받는 성사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병자성사는 어느 정도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자가 이 성사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병들었을 경우라든가, 동일한 병세가 계속되다가 중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환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많이 쇠약해진 노인들은 병세의 위험성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동체 안에서의 병자성사

병자성사 역시 사제 혼자서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사들과 마찬가지로 병자성사도 공동체의 성사입니다.

병자성사가 교회의 공식적인 성사이고 사제들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처럼 (마르 2, 1-12) 신자들도 적극적으로 주변의 환자들을 방문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 구분 | 8시 | 11시 | 영어미사 | 합계 |
|--------|-------|---------|------|---------|
| 미사참석인원 | 88 | 213 | 34 | 335 |
| 헌 금 | \$630 | \$1,303 | \$32 | \$1,965 |

< 교무금 > \$4,668

서춘애(11) 유한섭(10-12) 송분학(12) 채용분(11)
 김옥녀(11) 고연석(10-12) 남금지(11) 이정연(11)
 이건호(5-12) 구천남(7-12) 이병열(11) 천종욱(11)
 양인심(10-11) 조진석(9-12) 이완수(11-12)
 조우송(11) 최윤기(10-11) 김영희(11) 정진희(11)
 박일신(11) 최명숙(11) 육승주(11) 임윤택(11)
 양우선(9-10) 조승구(11-12) 황정희(11) 심재구(11)
 임희숙(8-9) 김성현(9-12) 김영자(10) 최응일(9-10)

< 성소후원금 > \$310

송분학(12) 채용분(11) 고연석(10-12) 정진희(11)
 조진행(6-10) 조진석(9-12) 최윤기(10-11)
 박일신(11) 임윤택(11)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조승구 \$1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 날짜 | 연 | 지 향 | 봉 헌 자 |
|-----------|---|------------|-------------|
| 11월 10일 일 | 연 | 김중화 | 정데레사(혜경) |
| | 연 | 이성원 | 정데레사(혜경) |
| | 연 | 정벤자민(대업) | 정데레사(혜경) |
| | 연 | 이마르코(재상) | 가족 |
| | 연 | 윤바오로(광의) | 가족 |
| | 연 | 박마리아(희원) | 가족 |
| | 연 | 모든 연령들 | 루르드의 성모 Pr. |
| | 연 | 연옥 영혼들 | 은총의 어머니 Pr. |
| | 연 | 김석순 | 가족 |
| | 연 | 김세실리아(순례) | 조바오로/분다 |
| | 연 | 김세실리아(순례) | 전실베스텔 가족 |
| | 연 | 홍말가리다(명선) | 가족 |
| | 연 | 박옥철 | 김로사리아(경숙) |
| | 연 | 노에드워드 | 조데레사 |
| | 생 | 최분도(환준) | 김안토니오(휘) |
| | 생 | 김로사리아(경숙) | 가족 |
| | 생 | 조베드로(찬구) | 조데레사 |
| | 생 | 조요셉(승구)가정 | 조데레사 |
| 11월 12일 화 | 연 | 최베드로(휘종) | 가족 |
| | 생 | 송프란치스코 | 송아가다 |
| | 생 | 김우성 | 송아가다 |
| 11월 13일 수 | 연 | 연령들을 위하여 | 영원한도움의어머니 |
| 11월 14일 목 | 연 | 김글라라(순점) | 전수산나 |
| 11월 16일 토 | 생 | 김데레사(정복)생일 | 익명 |
| | 생 | 조비비안나 생일 | 조마리아 |

~~~~ 오늘의 간식은 정호림 요한/다홍 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다음 주 17일은 김선류 타데오 신부님께서 교중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아울러 트라이밸리 성당의 성전건립 기금 마련 2차 헌금 및 약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 2차 헌금 안내

17일 : 트라이밸리 성당 성전건립 기금 마련 헌금

24일 :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대림절 성경 쓰기 : 시편 71장 - 150장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모임

- \* 트랙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구역장회의 : 11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서예반 첫모임 : 11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독서클럽모임 : 11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실
- \* 평협회의 : 11월 1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요셉회 : 11월 1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뜨개질사랑회 : 11월 1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3호

◆ 오클랜드 교구 성김대건 가톨릭 묘지 봉헌식

일시 : 11월 23일(토) 오전 11시

장소 : 1051 Harder Rd. Hayward, CA

◆ 신앙의 해 신앙상 후보자 추천

- \* 수상 내역 : 미사참례와 신심단체 활동에 적극적이며, 기도 및 성사생활에 열심하여 신앙적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한 포상
- \* 후보 추천 : 연말에 올해의 교우상(전교상, 봉사상, 사랑상) 시상이 따로 있으니, 위의 수상 내역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상일 : 11월 24일 신앙의 해 폐막미사 중
- \* 접수 :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
- \* 문의사항 : 영성부장 707-696-7743

**11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 1-2장**

|        |              |           |
|--------|--------------|-----------|
| 2 구역   | 11월23일(토) 6시 | 윤종진 엘리야 덕 |
| 6 구역   | 11월15일(금) 6시 | 정병구 베드로 덕 |
| 7-2 구역 | 11월23일(토) 5시 | 친교실       |

◆ 대림피정 안내

일시 : 12월 10일(화) 오후 7:30 - 10:00

12월 11일(수) 오후 7:30 - 10:00

주제 :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강의 :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참가비 : 무료(간식 제공)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2013년도 약정하신 교무금을 연말 안에 모두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주최 : 가톨릭교리신학원

접수 : 2013년 11월 11일 - 2014년 2월 7일

홈페이지 참조 : <http://ci.catholic.ac.kr>

◆ 성바오로말수도회 시청각 통신 성서교육원

접수 : 2013년 11월 - 2014년 1월 25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 <http://uus.pauline.or.kr>

◆ 성모회에서 고구마판매 이익금 \$500을 불우이웃 돕기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오전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